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윤운혜 루치아

(? - 1801)



윤운혜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양근의 한감개(현재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살았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01년 순교한 복자 정광수 바르나바가 그의 남편이고, 복자 윤점혜 아가타가 그의 언니다. 윤운혜는 비신자인 시부모의 반대로 남편과 혼인 문서를 주고받지 못하였다. 한편, 시부모가 조상 제사를 강요할 때마다 '교회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부부는 결국 분가해 한양으로 이주했다. 윤운혜 정광수 부부는 집 마당에 집회소를 짓고, 그곳을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모셔다 미사를 봉헌하였고, 전교에도 힘써 누구보다도 많은 이에게 교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분을 그리거나 나무 목주를 제작하고, 교회 서적들을 필사해 나누어주었다.

1801년 2월, 박해가 닥치자 윤운혜는 남편을 먼저 피신시키고 홀로 집을 지키다가 체포되었다. 배교를 강요하는 신문에 굴하지 않으며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같은 해 5월 14일(음력 4월 2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소리 주보 ▶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2ㄷ-3.4-5.6(◎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부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 환호송 1베도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북왕국의 멸망



1열왕 12장에 나오는 남북 왕국 분열 당시의 경계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적국의 칼보다 내전이 사회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확인해주는 성경의 예가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성기를 누리지만,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강제 노역 등으로 백성의 불만을 산 것입니다(1열왕 11장; 12,4). 이때 아히야라는 예언자는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열 조각을 예로보암에게 주는 상징행위를 통해 분단을 예고합니다(11,29-39).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때 북왕국을 세운 첫 임금인 바로 예로보암 1세(11,26)입니다.

그렇다고 북왕국이 세워지자마자 멸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원전 8세기, 예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당시 북왕국은 남왕국과도 사이가 좋아 둘다 번영합니다. 마침 외세가 약해진 점도 이런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북동쪽에 있던 아람은 아시리아 임금 아다드니라리 3세에게 제압당했고, 아시리아는 아다드니라리 3세가 죽은 뒤 무력한 임금들이 재위하면서 약해졌습니다. 고대근동의 열강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도 그때는 큰 위협이 아니어서, 남북 왕국은 평화롭게 번영하며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번영이 상류층의 부로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의 신탁에 반영되어 있듯이, 지배층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여 고급 건물을 짓고

호사를 누렸습니다(아모 3,15; 6,4-6 등). 이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발굴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그곳에선 상아 장식으로 과하게 장식된 건물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부유해질수록 더욱 욕심을 내면서 뇌물 수수와 약자 착취를 일삼고(5,11-12; 8,4-6 등) 그렇게 축적한 재산을 하느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자만하였습니다(8,4-6: “야곱의 자만”). 북왕국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복만 내려 주실 거라 여겼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더 청구하시는’(루카 12,48) 분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북왕국이 내리막을 걷게 된 건 예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남북 왕국의 관계는 냉각되고, 북왕국은 내분과 정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로보암 2세의 아들 즈카르야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까지 불과 14년 동안 임금이 여섯이나 교체되는데, 그것도 넷은 살해당합니다. 전성기를 누린지 불과 20~30년만에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내부 분열이 매우 큰 요인이었습니다. 부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이로써 나라의 힘이 약해져, 결국 강국에게 먹힌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줍니다. 자기만 더 가지려 서로 갈라져 싸운다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언제든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



교회의 위계 조직

「교회헌장」 제3장

「교회헌장」 제3장은 “교회의 위계 조직, 특히 주교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위계 조직”입니다. ‘위계’의 라틴어 [히에라르키아] (hierarchia)는 그리스어로 ‘거룩하다’의 [히에로스] (hieros)과 ‘통치’의 [아르케] (arche)의 합성어인 [히에라르케스] (hierarches)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위계’는 어원적으로 ‘거룩한 통치’란 뜻을 갖습니다. ‘위계’란 표현은 제1장 8항의 ‘가시적이고 영적인 교회’에서 이미 언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가시적 구조로 세우셨으며, 그 교회는 ‘위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구조’와 ‘조직’이란 단어가 적용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사회적 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회가 「교회헌장」 제2장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전체로서의 하느님 백성의 특징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제3장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안에 제도화된 성직자에 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의회 이전의 교회론에서 볼 수 있는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배우는 교회’(Ecclesia discens)의 이원론적 구조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공의회의 교부들이 제시한 제3장 ‘교계 제도’에 대한 주석은 제2장 ‘하느님 백성’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나 역할 혹은 신분의 차이보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장에 나타난 “교회의 위계 조직”에 대한 항목들은 모두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 직무’라는 바탕 아래에서 이해됩니다. 먼저 도입에 해당하는 18항

은 봉사 직무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 교황 수위권과 주교직에 대한 가르침을 계승합니다. 이어서 19항은 직무에 대한 성경의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을 언급하고, 20항은 초기 교회에서 그 직무의 발전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이 세워졌음을 설명합니다.



하느님 백성 안의 교황 - 교황 레오 14세가 2025년 9월 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복자 카를로 아퀴티스의 시성식을 마치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과 만나고 있다.

21항은 주교직의 본질과 성사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항은 주교단의 단체성과 그 단장인 교황의 수위권에 관해 말하고, 23항은 주교단과 그 안의 주교들에 대한 것으로 개별 주교가 개별 교회 및 보편 교회와 맺는 관계, 주교회의와 교황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4항은 주교들의 봉사 직무와 그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25항에서 27항까지는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교도권)와 거룩하게 하는 임무(성화권) 그리고 다스리는 임무(통치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끝으로 28항은 신부들, 29항은 부제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시적 요소로서의 위계 제도가 하느님 백성 안에서 그분 몸의 어떤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내 말 좀 들어줘

이호연 미카엘 / 원흥동 성당

생활이 힘들어올 때마다 ‘내 말을 들어 달라.’고 울부짖는 아내의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더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아내를 원망하며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성주간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반목 그리고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겨우 겨우 인내하며 사순시기를 보내고, 마침내 부활절 미사를 드리고 나서야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기쁨으로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자, 아내와 함께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여 떠나는 길이 어느 때보다 설렘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고 떠나는 길이기에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역시나 이틀간의 피정을 끝내고 개별 여행을 시작한 첫날, 피정의 은총 크기만큼이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주 자연 풍광을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와 술 한 잔을 나누다가 말투가 거칠어졌고, 급기야 불만이 터져버린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앙금처럼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를 외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로 가득했던 은총의 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연스레 하려던 말을 멈추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듣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아내는 스프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 주며 토닥이듯 아내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좋다. 하느님 손길...”

그 소리가 기적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사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자.’ 기도 향기로 가득했던 피정 센터 신부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곤히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없이 안쓰럽고 고맙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복판이 뭉클했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울부짖음을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나 스스로 찾으려 한 것이 문제였구나.’ 40년이 넘도록 쌓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성당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삶을 뜻깊은 피정의 은총이 톡 건드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축복으로 벽차오른 감정이 따뜻한 눈물로 배어 나왔습니다. ☺



**교구
소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요기도회' 안내

※ 10월 첫째 '토요기도회'(10/4)는 추석 연휴로 없습니다.

문의 031-941-6236 민족화해위원회

지금동 성당 10월 혼인교리 안내 - 추석 연휴로 변경

일시 10/12(주일) 13:30~16:30

장소 지금동 성당 요셉홀

회비 2만원 (커플)

문의 031-567-3950 (전화 접수)

교구 청년 10월 프로그램 -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하는 HOPE STAY 피정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희년, 바오로딸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는 Hope Stay는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10/14(화) 20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10/24(금) 20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소년 및 청년 (15~45세)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제37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7(금) 19시 ~ 19(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1월 (대침묵 피정)

주제 희망의 등정

일시 11/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강사 최대한 세례자요한 신부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의정부교구 제151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10/24(금)~26(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전신자 성경 읽기 9/21(주일)~27(토) : 요한 16,16-33



9/27(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8월 10일,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124,638,66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향후 신설 본당의 부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들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9/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교회의 씨앗이 된 한국의 순교자
강사: 김성훈 안드레아 신부 (인천교구)
문의: 010-2127-0032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0/24(금)~26(주일), 11/21(금)~23(주일) [2박3일]
장소: 성안드레아 피정의집 (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착한목자수녀회

특별초청 - 깔깔이 한국의 이파바로티

일시: 10/1(수) 18:30~20:30, 녹번동 성당 2층 소성전
주제: 깔깔이 한국의 이파바로티 (말씀·미사·안수)
강사: 이해동 라파엘 신부 (살레시오회)
문의: 010-2452-3359 (녹번역 4번 출구)

9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9/25(목) 11시 [매월 넷째 목요일]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31-941-6238

2025 한마음 도보순례 피정

일시: 9/28(주일) 10시~17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초입동~양주순교성지
주제: 하느님의 흔적 - 양주순교성지 순례
대상: 도보순례를 좋아하는 모든 신자
회비: 2만원 / 접수: 9/22(월)까지
문의: 031-840-0018 (내선 211)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의정부교구 1지구 성령 하루 피정

일시: 9/29(월) 09:30~17시, 호평동 성당
오전강의: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오후강의, 미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5천원 (점심제공)
문의: 010-9297-8821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9/22(월) 13:4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의, 안수)
강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문의: 010-8917-009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0/17(금)~22(월), 11/14(금)~17(월),
12/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피정 신청)

927 천주교 기후정의 미사

일시: 9/27(토) 13시
장소: 서울 보신각 앞 (1호선 4번 출구)
주례: 강우일 베드로 주교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 순교와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붉은 색의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주세요.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0/17(금)~19(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섬,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날짜: 9/18(목)~20(토), 10/30(목)~11/1(토),
11/11(화)~13(목)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사제,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생태순례: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11/2(주일)~4(화),
12/6(토)~8(월), 12/12(금)~14(주일)
성지순례 (추차도):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2026년 피정 접수중]
연말: 12/31(수)~1/3(토)
장소: 면현의 집 / 문의: 064-732-4702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장소: 가톨릭회관 7층 (명동)
강사: 9/23(화) 이상기 회장, 9/30(화) 이병주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 (토) 14시 ~ (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지원: 셔틀버스 (초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비: 2만원 (1박3식,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차도포함): 11/15(토)~18(화)
자연순례: 10/11(토)~13(월), 11/10(월)~13(목),
11/27(목)~29(토), 12/5(금)~7(주일)
체나콜로대피정 포함: 10/18(토)~20(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시설영선반 1명
업무: 환경미화 및 영선업무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니어를 위한 영적돌봄(Spiritual Care) 교육

자기 발견을 통해 영적 돌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일시: 10/17~11/28, 매주(금) 09:30~12:30
[11/21 휴강, 총6회]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 회비: 20만원
대상: 65세 이상 누구나 (선착순 10명)
강사: 박수덕 수녀 (성심수녀회, CPE 수퍼바이저)
문의: 031-946-2337, 010-9099-2337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일시: 10/13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기도하며 기도를 배움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일시: 10/15~11/12, 매주(수) 14시~16시 [5주간]
장소: 명동 영성센터 B201호 / 회비: 5만원
10/15 김현덕 신부, 10/22 장궁선 신부,
10/29 하형민 신부, 11/5 최강 신부,
11/12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 강의, 지도사제 파견 미사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가톨릭 다운 합창단원 모집 - 혼성

연습: 매주(화) 20:30~22시, 대화마을 성당
접수: 10/17(금)까지
자격: 가톨릭 교우로서 성가대 활동 유경험자,
성악 전공자, 화음에 자신이 있는 분
오디션: 자유곡 1절을 반주 혹은 무반주 녹음하여
입단 담당자에게 파일 전송
담당: 010-5275-3388 김 안드레아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

일시: 10/23~11/13, 매주(목) 19:30 [4강]
주제: 걸어다니는 동학 장일순/ 세상을 구원하라
(영화 '약속') / 유교를 만난 마테오 리치 /
과학의 눈, 신앙의 빛
강사: 한상봉 편집장, 민병훈 영화감독,
이진현 신부, 조동원 신부
방식: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청년할인
문의: 02-2135-9398 한국CLC,
<http://www.kclc.or.kr>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9(월)~10/20(월)
전형: 10/25(토) / 문의: 02-705-8668~9

피에타스 시니어 합창단 베이스 단원 모집

대상: 성가 합창 경험 있는 남성 베이스 단원
연습: 매주(화)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다함께 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문의: 010-9842-8818 (나이 제한 없음)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전문편집, 재무회계, 인사기획, 영업, 매장판매
서류: 입사지원서 (본사양식)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문의: 02-6365-1829
※ 홈페이지 catholicbooks.kr-채용정보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서품 180주년 성지순례

2026년 1/15(목) 마카오, 베트남 (6일)
지도사제 동행, 선착순 10인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4(금)~25(화)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75만원)
11/17(월)~21(금) 베트남 남부 (160만원)
12/8(월)~19(금) 희년 이탈리아 (485만원)
12/22(월)~26(금) 성탄 필리핀 (180만원)
문의: 02-2281-9070

한국천주교순교자현양음악회 #3 공연

모니카교회음악원 가톨릭시니어합창단 2025 정기연주회
일시: 10/11(토) 17시 / 장소: 여의도 KBS홀
지휘: 이상희 모니카 / 기획연출: 심준보 베드로
회비: 2만원 / 문의: 010-5245-2848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7(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1/21(수)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14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1/5(수) 과달루페, 칸쿤 (10일, 695만원)
11/12(수) 이탈리아 (11일, 560만원, 대한항공)
1/10(토) 남인도 성지순례 (7일, 350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9일, 3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12(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11/21(금) 이태리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2/14(토) 나가사키 (4일, 169만원)-구정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DIocese of Uijeongbu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

공모 부문 방송 영화 부문 (TV, 라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 부문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등)
신문 잡지 출판 부문 (신문, 잡지, 출판 등) 공연 예술 부문 (연극, 뮤지컬, 공연 등)

출품 자격 2024년 10/1 ~ 2025년 9/30 제작, 발표된 작품

심사 기준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의 보편적 가치 제시, 가시적인 결과나 업적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정도, 출품작의 질적 완성도

제출 서류 추천서, 공모 지원서, 공모 작품 (요약본 필수) ※ 응모 양식은 홈페이지 cbck.or.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우편 (04918)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 메일 mscm@cbck.kr

시상 부문 대상 상패와 상금 500만 원 / 부문상 상패와 상금 300만 원 / 특별상 상패와 상금 300만 원(해당자가 있는 경우)

시 상 식 12/4(목) 17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문의** 02-460-7625 사회홍보위원회 ※ cbck.or.kr 알람마당 참조

최상의 은총이자 사랑 표현, 순교(殉敎)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의 경축 이동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는 주일 전례가 아닌 대축일 전례로 봉헌됩니다. 오늘은 '순교'에 관해 알아봅니다.

순교는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최상 은총의 결과이며,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순교는 그리스어로 [마르튀리온] (μαρτύριον), 라틴어로는 [마르티리움] (martyrium)이라고 하는데, '증언' 혹은 '증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박해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교 용어로 채택되면서 '순교'라는 의미도 얻게 되었습니다.

순교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신 생명의 희생 곧 진짜 죽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직접적 반대인 박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과 그분 진리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반드시 엄격하고 정확하게 적용되지만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해된 아기들(마태 2,16-18)에게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이란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나 성녀 마리아 고레티는 그리스도교의 덕행을 방어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성 토마스 베켓은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려다 희생된 경우입니다.

순교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①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미 순교 기록과 교부들의 저서에 나타난 순교의 첫 번째 의미는 스승이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입니다. 순교가 주님과 가장 일치하는 방법임을 알았던 사도들은 직접 그 길을 걸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권하였습니다.
- ② 그리스도의 현존: 순교는 자기 의지나 영웅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가능합니다. 박해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마태 10,19-20),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강한 용기와 천상의 평화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 ③ 애덕의 완성: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폴리카르포는 순교자들을 "참된 애덕의 원형들"(『필리피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1,1)이라 하였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순교를 "애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 ④ 순교의 열매: 순교는 순교자 본인에게 은총을 가져다주면서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한 희생 제사도 됩니다. 곧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테르툴리아노는 박해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들에게 잡혀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그 씨앗이다."(『호교론』 50,13)라고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긴밀한 일치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완덕에 이른 성인들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품었던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자리할 수 있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행주성당** 성모순례지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똥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9월 20일 소사아가다: 배성은
21일 마태오: 이은혁

공 지 / 단 체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접수
합동 위령 미사 시간: 10월 6일 오전 11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9월 28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작일: 10월 4일 토요일부터
- 예비신자 모집
교리 시작: 10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12월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을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9월 21일	주송자	오정화 아녜스
	김순곤 라자로, 이경예 마르타	
9월 28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배성은 소사아가다, 구미경 리베라따	

우리들의 정성 (9/8 - 9/14)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3건 650,000원
주 일 헌 금 1,023,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560,000원
초봉헌 560,000원

공 지 / 단 체

- 국경없는 의사회 홍보 및 후원자 모집
오늘은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생존 위협에 처한 이들과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한 환자들을 위하여 캠페인 활동 및 홍보와 후원자 모집을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 교구 성지 개발 2차 헌금
오늘은 교구내 성지 개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회답송

